

☞ 연합장로교회, 여호수아 비전센터 봉헌 예배



기사입력시간 : [2014-02-23 05:15]

“최고의 지혜를 만나는 요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당인 여호수아 비전센터를 완공한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정인수 목사)가 지난 2월16일 입당예배를 드렸다.

여호수아 비전센터는 2만 2천 Sf 2층 규모로써 3개의 독립 예배실(1층-한어권 210석, 150석, 2층-영어권 310석 규모), 주일학교 교실 9개(1층 4개, 2층 5개), 성가연습실, 음악준비실, 어린이 카페 등 기타 시설로 구성됐으며, 프로젝트 예산 규모는 3백만불이다.

이날 정인수 목사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축복의 공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비전센터를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봉헌한다”며 “오늘 첫 렌트비 5천불을 영어 회중에서 감당했다”고 EM에 감사를 전했다.

건축위원장 조상진 장로는 “아름다운 이 건물에서 우리 2세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오른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장로교회 3대 담임목사인 김선배 목사는 ‘지혜의 근본(잠 9:10)’을 제목으로 “미국은 솔로몬시대 여러 미방신이 들어온 것과 같은 다종교의 시대가 되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다니엘이 성경적 모범을 보인 것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훈련받았기 때문”이라며 “교육은 교회의 뼈를 형성하게 하며, 크리스찬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있다”고 설교했다.

이후 EM 담당 다니엘 김 목사는 “처음에 센터 설립 계획을 들었을 땐 감이 오지 않았다. 1세대의 헌신을 바탕으로 2세대가 협력하며 놀라운 일을 이루심에 감사하다”고 감격을 토해냈다.



안재근 장로는 건축 모금에 대해 “필요한 현금과 작성 현금이 기적처럼 맞아 들어감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은행 융자액은 125만불이며, 24개월 작성 기간 중 이미 지난 10개월간 80여만불이 현금됐다”고 보고했다.

이날 연합장로교회는 설계 및 시공회사인 알콘 건설과 윤모세 장로, 용자 은행인 웨스트뱅크와 김건수, 안재근, 조상진 장로, 박일우 집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오영록 한인회장, 허정갑 교수, 임연수 목사가 축사를, 윤승구 목사가 축도를 맡았다.

특히,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특송함으로써 여호수아 비전센터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지혜의 요람으로써 역할해나갈 것을 한층 기대케 했다.

강지연 기자



건축위원장 조상진 장로는 “아름다운 이 건물에서 우리 2세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 오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정인수 목사(오른쪽)는 완공을 위해 적극 협력한 KM과 EM 회중에 감사를 전했다.





작성자 : 크리스찬타임스